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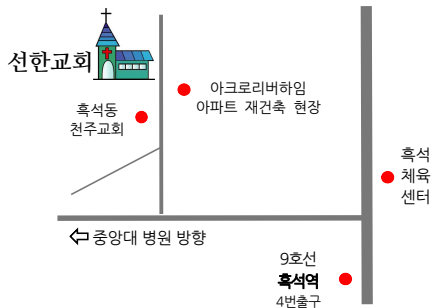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4:00	청 년 부	오전 1:00 드보라회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영 어 예 배	오전 3:30 에스더회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금주 (미국)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국내선교사(협력)	한 배 선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장 로	조 윤 익 (집사장)		
	김 대 희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박 희 태		(2호) 세종 선한교회
	유 신 웅		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딤후 2:1)

Be Strong In The Grace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기도회 참석 서로 돌아보기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창립 38주년

감사예배

암 송 구 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23)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67장 (통일찬송가 31장)		
	예 배 기 도	김대희 장로		
	말 씬 봉 독	에베소서 1장 15~23절		
	찬	양		드림성가대
	설	교		교회를 향한 기도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이동수 이성범 이용재		
	케 익 절 단	담임목사 부부 및 집사장 부부		
	근 속 자 선 물 증 정			30년 근속 : 박한별 윤호중 이용규 허정미 20년 근속 : 손영삼 장수정 박지윤
	선	포 식		‘2025 프로젝트(500)’ 선포식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는 믿네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씬 봉 독	승리 뒤에 오는 슬럼프 (열왕기상 19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창립 38주년 기념 감사예배**
 오늘 오전예배는 창립 38주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창립일 : 1980년 3월 16일
 - 근속자 -
 30년 : 박한별, 윤호중, 이용규, 허정미
 20년 : 손영삼, 장수정, 박지윤
- 오후예배안내**
 오늘 오후예배는 목사안수예배로 대신합니다.
 일시 : 오후 3시
 대상자 : 권인혁, 원종선 전도사
- 찬양집회**
 다음주일(25일) 오후예배는 찬양집회로 드립니다.
 강사 : 노문환 목사
- 2025 프로젝트(500) 워십**
 2025 프로젝트(500) 준비를 위한 워십이 있습니다.
 일시 : 이번주 토요일(24일) 오후 1-3시
 대상자 : 운영위원들, 각 부 부장들, 각 부서장들
- 성경공부 및 양육과목개설**
 과목 : 기도생활, 요한복음, 제자훈련, 구약/신약개론, 예수님의 생애.
 신청 : 교육부장(김현석 집사)에게 신청 바랍니다.
- 대심방**
 대심방 기간 중입니다.
 게시판 일정을 보시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준비안내 및 정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북, 강서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서초셀**입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8년 성경강론 범위						
3/18	3/19	3/20	3/21	3/22	3/23	3/24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1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가정예배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찬송 : ‘너 성결키 위해’ 420장

본문 : 아가 5장 1~2절

말씀 : 아가서에서 만나는 마지막 장애물은 ‘영적 태만, 영적 게으름’입니다. 5장은 이를 신부가 자는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3장의 밤과 5장의 잠은 대조됩니다. ‘밤’이 신부가 주님을 열심히 찾으나 주님의 응답이 없는 깜깜한 시간이라면, ‘잠’은 주님이 열심히 신부를 찾으시나 신부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영적 태만의 특징은 깨어 있는 듯하나 실상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2절) 주님은 네 번이나 반복하여 간절히 신부를 부르며 깨우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야 문을 열어다오.(2절)” 그러나 신부는 즉시 문을 열지 못합니다. 문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시는 주님의 행동과 신부의 지체된 행동은 대조됩니다.

영적 태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이 안일해집니다. 학교 다닐 때 흔히 하던 수업 빼먹기, 지각하기, 대충 숙제하기 같은 겁니다. 둘째는 신앙이 종교화됩니다. 신앙이 껍데기만 남는 상태입니다. 몸만 교회에 있고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셋째는 신앙에 바뀌치기가 일어납니다. 심장이 뛰는 대상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다른 것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신부가 영적 태만에 빠진 이유는 자만심입니다. 주님의 칭찬 때문에 신앙의 잠에 빠져 있는 신부를 보여줍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꿀 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1절)”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이내 주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곧 꾸중을 듣는 장면은 자만심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미지근한 라오디게아교회처럼 오늘날도 많은 교회, 많은 성도가 신앙의 잠을 잡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어도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입술은 움직이나 가슴은 냉랭합니다. 간절함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피곤함으로 가득합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즐거움의 대상이었는데 즐거움의 대상도 어느새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도 문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신부처럼 잠들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살펴야 합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은혜의 말씀

제목

교회를 향한 기도 (엡1:15-23)

서론

교회 창립 38주년을 감사하며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1. 바울의 기도

- (1)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17절)
- (2)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18절)
- (3) 성도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18절)
- (4)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고(19절)
- (5) 머리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22절)

본론

2. 우리의 기도

- (1) 우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 (2)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하소서
- (3)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되게 하소

결론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김대희 장로	박희태 장로
헌 금 위 원	이동수 이성범 이용재	조선희, 이광순, 장혜선
오후예배 기도	목사안수식	김점분 권사
안 내	강북,강서셀	서초셀

매일 성경 강독		메마름 속에 나타난 기적		날짜 : 3월 19일	
찬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가 307장/통일 찬송가 588장)			
통독		열왕기상 17장			
본문 내용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가 날라 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합니다. 그는 또다시 여호와와 인도로 사르밧 과부의 공계를 받으며 그곳에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엘리야를 공계하던 과부의 아들이 앓다가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아이의 시체를 다락으로 데려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자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 일로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입에 있는 말이 여호와와 말씀인 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생각해보기					
1		엘리야의 출현 (1) 북이스라엘 왕들의 패역한 모습은 아합 왕때에 이르러 극에 달함 (2)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싸우는 대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여 우상 숭배의 징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할 것을 예언함 (3)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를 위해 도피처를 마련하시고 보호하심: 그릿 시냇가, 사르밧 과부 (4)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에 마지막 것을 드림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가뭄을 무사히 넘김 (5)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핵심 단어		사르밧 - '사르밧'은 '염색하다'는 뜻에서 온 명칭이다. 따라서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등과 마찬가지로 베니게의 명물인 염료 생산지였음을 알 수있다. 이 성읍은 헬라어로는 '사렙타'로 불리우는데(눅 4:26) 오늘날의 수라펜드(Surafend)로서 두로와 시돈 가운데쯤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이다. 그런데 이곳은 이세벨의 부친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이다(16:31). 결국 이세벨이 여호와 신앙인들을 탄압하고 있을 때 정작 엘리야는 이세벨의 고향 깊숙이 숨어버린 셈이다. 이 점은 마치 바로의 궁전에서 온전히 양육 받은 모세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서 대적자의 심장 부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피난처와 은신처가 된 기막힌 역설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찬양과 기도	나의 민족과 유익을 위해 /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통 94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이슈우화에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랑하다 망신당한 허영심 많은 작은 까마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자신의 볼품없는 깃털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공작새가 떨어뜨리고 간 깃털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 깃털을 자기 털에다 꽂았습니다. 자기가 봐도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 까마귀는 공작새의 깃털을 꽂은 채로 동료 까마귀 무리를 찾아가 깃털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까마귀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까마귀가 이번에는 다른 새들의 무리에 가서 또 자랑을 했습니다. 역시 다른 새들도 놀라워하며 까마귀의 화려한 깃털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우쭐해진 마음에 까마귀는 점점 친구들을 앞잡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공작새 무리에게 찾아가 으스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작새들은 까마귀의 몸에 꽂힌 것이 자신들의 깃털임을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화가 난 공작새들은 교만한 침입자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의 날개에 있는 자신들의 깃털을 모두 뽑아내고 멀리 쫓아 버렸습니다. 다시 초라한 날개를 가진 까마귀는 할 수 없이 예전 동료 까마귀 친구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으스스했던 자신의 행동 때문에 자기 무리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경험은 없나요?	
말씀 나누기	고린도후서 10:12~18	
묵상포인트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죽기까지 낮아져 복종하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그를 비난하며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공적을 자신들의 공적으로 가로채 스스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자기를 높여 자랑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칭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상급은 자기 자랑이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 한다면 ‘주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기준이 무엇이라 말하나요? 그들의 칭찬은 결국 어떤 평가를 받나요?(12절)	
적용하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심리 기저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랑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제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남의 수고를 ‘나의 공로’로 돌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만을 저의 기쁨이자 자랑으로 삼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주 예수 보다 더 (찬송가 94장/통일 찬송가 102장)
통독	열왕기상 21장
본문 내용	아합은 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하지만 나봇은 그 포도원이 조상의 유업이기에 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음모를 꾸며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입니다. 이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만나 그와 그 아내 이세벨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이 죽게 될 것을 전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아합은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아합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재앙이 내려질 시기를 그 아들의 때로 연기하십니다.
생각해보기	
1	나봇 포도원 탈취 사건 (1)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을 씌워 돌로 쳐서 죽음 (2) 엘리야 선지자가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자 아합이 잘못을 뉘우침 (3) 하나님께서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아들의 시대에 내리시기로 하심 (4) 재물을 탐하거나 불의와 타협하는 모습이 없는지 우리자신을 늘 점검해야 한다.
핵심 단어	내가...드리리이다 - 나봇의 말 중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3절)을 '내가' 주겠다고 말하는 이세벨의 언동에서, 그녀가 정녕 이스라엘을 해치는 대적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이세벨은 아합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걸어야 할 삶의 방향을 왜곡하도록 부추긴 암적 존재였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내 주 되신 주를 (찬송가 315장/통일 찬송가 512장)
통독	열왕기상 18장
본문 내용	삼 년이 지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바다는 아합과 함께 물 근원을 찾으러 나섰다가 우연히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 백 인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을 아합에게 알리라는 엘리야의 지시에 그는 주저합니다. 오바다의 보고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보내도록 청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청한 뒤 누가 참 신인지 대결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열두 돌을 취해 무너진 여호와와 단을 수축합니다. 단 위에 세 번이나 물을 부은 뒤 기도하자 여호와와 불이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예언대로 큰비가 내리고, 엘리야는 비를 피해 내려가는 아합의 마차를 여호와와 능력으로 앞지릅니다.
생각해보기	
1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1) 3년의 은신의 침묵을 깨고 엘리야는 가뭄으로 인해 궁내대신 오바다와 함께 친히 물을 찾아 나선 아합을 만남 (2) 아합과 엘리야는 서로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17,18절) 라고 주장하며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가름하기 위해 갈멜 산에서의 대결을 제시함 (3) 엘리야와 450인의 우상숭배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각자가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떼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참 하나님이신 줄로 아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함 (4) 결국 이 대결의 결과는 불로써 응답하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심 (5) 신앙에는 회색지대란 용납하지 않으므로 분명한 결단이 요구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21)

핵심 단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 '보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물론 '가서 만나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뜻은 보다 폭넓고 깊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단어가 '제시하다', '증명해 보이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동은 앞서 선행된 어떤 예시, 예견에 대한 결정적 증거 제시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본장에서 엘리야의 행적은 이러한 의미에 부합된다. 즉 엘리야는 일찍이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가뭄 종식의 예언을 위해 다시 아합과 만나도록 명령받는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같은 선포를 하여야만 가뭄과 같은 자연력의 고삐를 쥐고 계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아합에게 '보이라'가는 엘리야의 행동은 여호와와 하나님되심을 '증명해 보이라'가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승리 뒤에 오는 슬럼프	날짜 : 3월 21일
찬양	부름 받아 나선 이몸 (찬송가 323장/통일 찬송가 355장)		
통독	열왕기상 19장		
본문 내용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일을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해 복수의 칼을 갈고 엘리야는 혼자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다가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는 거기서 사십 주 사십 야를 행해 호렘 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에 세우시고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그의 앞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엘리야의 두려움을 아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돌려보내시며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 그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생각해보기			
1	이세벨의 위협과 엘리야의 도피 (1) 갈멜산 사건으로 악에 바친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 엘리야는 도피하는 중 극도로 지쳐 죽기를 구함 (2) 엘리야는 천사의 도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호렘산에 이르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3) 하나님께 세가지 사명을 받고 다시 힘을 회복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엘리사를 부름 (4) 우리는 실의와 낙망을 수없이 경험하지만 위로의 하나님께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핵심 단어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 '낫다'에 해당하는 '토브'는 보통 '선하다', '좋다'는 뜻이다. 그리고 질이나 가치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우를 가리켜 쓰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자신이 선조들에 비해 나을 바가 없다고 한 말은 구체적으로 무얼 의미하는가? 우선 본절은 엘리야가 자신을 '못난 놈'으로 자조하는 비애 섞인 말임을 명확히 하자. 그 다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임을 기억하자. 그런데 그 사명이 성공한듯 보이는 순간에 닥친 위기는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의 좌절과 허탈감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러한 비탄속에서 이제 엘리야는 지금까지 선조들이 겪은 이스라엘 역사의 성공과 실패에서 자신 역시 한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다는 실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무익한 말싸움		날짜 : 3월22일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통일 찬송가 482장)			
통독		열왕기상 20장			
본문 내용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벤하닷은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종주권을 주장합니다. 아합은 모든 장로와 백성과 상의한 후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벤하닷은 이 말을 듣고 성을 향해 진을 펼칩니다.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이스라엘 각 도 방백의 소년들로 벤하닷을 치면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선제공격으로 벤하닷의 무리를 쫓으며 아람 사람을 크게 쳐서 도륙합니다. 이에 아람 군대도 반격을 준비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다시 대전합니다. 아람에 비해 이스라엘은 너무나 열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적장 벤하닷을 사로잡은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를 자기의 형제라 부르며 놓아줍니다. 한 선지자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자기 동무에게 자신을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한 얼굴로 아합의 지나가는 길에 있다가 한 이야기를 통해 아합을 훈계합니다. 그 이야기를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던 아합은 그가 선지자임을 알고 나서야 근심하며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생각해보기					
1		아람과 북 이스라엘간의 전쟁 (1) BC.856년경 아람왕 벤하닷이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합왕에게 거만하게 엄청난 공물과 여자들을 요구함 (2) 한 선지자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아람에 대한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자 아합은 출전하여 1,2차에 걸쳐 아람에 대하여 대승을 거둬 (3)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아람왕 벤하닷을 아합이 협정에 의해 살려주자 이 불순종에 대해 선지자가 최후의 심판을 예고함 (4)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이유와 조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핵심 단어		너는 내가 여호와인줄 알리라 - 본장에는 아합이 벤하닷에게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온다. 엘리야의 투쟁과 아합의 범죄를 그려 나가던 본서 기자가 이처럼 본장에서 느닷없이 아합의 승리를 수록한 것에 대해 독자들은 석연치 않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절은 아합이 심판받아 마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일에 대한 신학적 답변을 제시해 준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심으로서 오직 당신만이 환난날의 구원자시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아합은 물론 온 백성들에게 거듭 거듭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이다. 요컨대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원하신 언약을 상기시키려는 집요한 노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태도에서 입증되듯이 아합은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격하여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한갓 위기극복을 위한 수단 정도로 간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아합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꾼 것이나 진배없다. 아합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도 실상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